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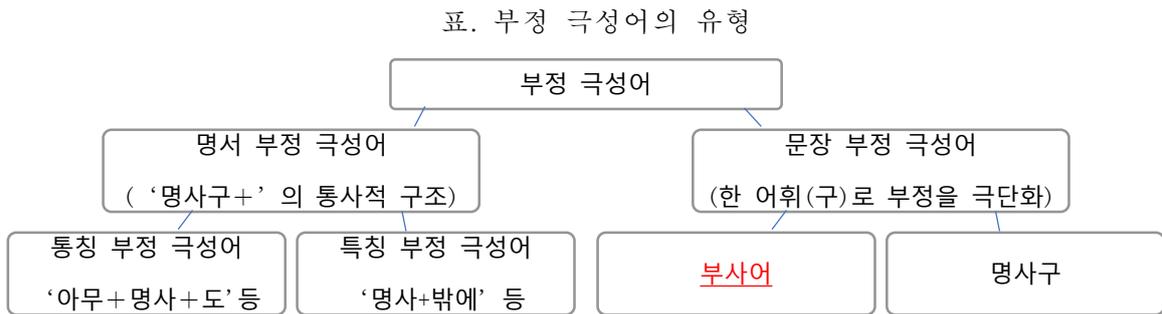
# 한일 양언어의 부정 극성 부사와 부정 접두사의 호응에 대하여

이이다 하나코 (간사이대학교)

## 1. 서론

본 고찰의 목적은 한일 양언어의 부사어로서의 부정 극성어<sup>1</sup>와 호응<sup>2</sup>하는 부정 접두사 ‘미(未)-, 비(非)-, 불/부(不)-, 무(無)-’<sup>3</sup>에 관하여 그 호응의 양상을 고찰하고 밝히는 것이다.

부정 극성어(negative polarity item)란 부정 요소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부정 요소에 의한 부정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나 구를 말한다(김영희 1998:264). 이 부정 극성어의 유형에 관해서 김영희(1998)는 명사 부정 극성어와 문장 부정 극성어로 나누고 있다. 또 명사 부정 극성어는 어휘 구성의 대상이 되는 명서가 부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특칭 부정 극성어와 통칭 부정 극성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형과 그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김영희(1998:256) 참고 >

본 고찰에서는 형태가 통사적이고 다양한 어휘와 교체가 가능한 명사 부정 극성어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가 정해진 형태로 나와서 문장안에서 부정의 의미를 극단화하는 기능을 갖는 문장 부정 극성어를 대상으로 한다. 또 본 고찰에서는 부정 극성어 다음에 부정 접두사가 결합된 어휘가 호응한 문장을 고찰하는데, 부정 접두사가 결합된 어휘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부정 극성어 중에서도 부사어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에서는 구종남(2003)을 참고로 하여 고찰 대상으로 하는 부사형 부정 극성어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sup>1</sup> 이하 본고에서는 이것을 ‘부정극성어’ 라고 한다.

<sup>2</sup> ‘호응’이란 앞에 특정한 어휘가 사용되었을 때 뒤에 그것에 응하는 특정한 서술 표현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仁田 2012:261).

<sup>3</sup> 학자에 따라서는 ‘몰(沒)-’이나 ‘탈(脫)-’을 부정 접두사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본 고찰에서는 한국어의 부정 접두사는 고영근(2019:494), 일본어의 부정 접두사는 仁田(2012:274)를 참고로 네 가지로 설정한다.

한국어의 부사형 부정 극성어  
 과히, 결코, 결단코, 그다지, 더 이상, 당최, 도무지, 도저히, 미처, 별달리, 별로, 여간  
 /여간해서(는), 전혀, 절대(로), 좀처럼, 좀체(로), 차마, 통

일본어의 부사형 부정 극성어와 그 기능은 仁田(2012)를 참고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표. 일본어의 부사형 부정 극성어와 그 기능

기능		부정 극성어
정도 부사	정도의 완전 부정	少しも `ちっとも `ぜんぜん `まったく `まるで `まる(っ)き り `てんで `さっぱり `さらさら `から(っ)きし `いっこうに
	정도의 약 부정	あ(ん)まり `たいして `そんなに `それほど `さほど `さし て `ろくに `ろくろく `ろくすっぽ
빈도 부사	빈도의 강 부정	めったに `いまだ(かつて) `二度と
양태 부사	완전 부정 판단	け(っ)して
	부정 추량 판단	まさか `よもや
	불가능 판단	とても `とうてい
	완전 긍정의 보류 판단	必ずしも `まんざら `あながち

< 仁田(2012:262) 참고 >

한국어도 각각 부정 극성어의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고찰해서 仁田(2012)의 부정 극성어의 기능적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한국어의 부정극성어에서는 어휘와 기능이 1 대 1 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정 접두사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를 말한다. 한국어 ‘미-, 비-, 불/부-, 무-’와 일본어 ‘未-, 非-, 不-, 無-’와 같이 양언어 동일한 접두사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부정 극성어와 부정 접두사가 호응하는 문장이 성립되는 데에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각각 일정한 규칙이 존재할 것이다. 본 고찰은 언어의 관점에서 양언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일 양언어 간의 부정 극성어 및 부정 접두사의 잘못된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정 극성어에 관하여 고영근(2019)과 仁田(2012)는 각각 양언어의 부정 요소(문법적 부정 요소 ‘안-, 못-, 말-’, 어휘적 부정 요소 ‘없-, 모르-’ 등)와의 호응이 불가결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정 접두사는 부정 요소에서 제외되므로 부정 극성어와 부정 접두사의 호응은 인정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김영희(1998), 구종남(2003), 이은섭, 이선웅(2013) 등은 특정한 부정 극성어나 특정한 환경에서만 비부정문에 있어서도 부정극성어와 호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부정 극성어의 호응 조건은 명시적인 부정 요소의 우무가 아니라 그 문장의 문맥상 의미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찰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부정 극성어와 부정 접두사의 호응의 개별적인 허용 가부를 밝히고 한일 양언어의 허용 조건을 비교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고찰의 고찰 대상으로는 한국어에서는 “연세 20 세기 한국어 말뭉치”, 일본어에서는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부정 극성어와 부정 접두사가 호응하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 때 부정 접두사 외의 다른 부정 요소가 존재하는 문장은 부정 접두사에 의한 부정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 고찰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 양언어에서 부정 극성어와 부정 접두사가 호응하는 경우의 호응 양상을 그 출현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표.부정 접두사와 부정 극성어의 호응 양상<sup>4</sup>

기능		한국어				일본어			
		미-	비-	불-	무-	未-	非-	不-	無-
정도 부사	정도의 완전 부정	-	24	38	12	20	92	232	232
	정도의 약 부정	-	-	-	-	-	-	-	-
빈도 부사	빈도의 강 부정	-	-	19	10	1	14	2	2
양태 부사	완전 부정 판단	-	-	183	-	-	-	-	-
	부정 추량 판단	-	-	-	-	-	-	-	-
	불가능 판단	-	-	248	-	-	57	-	-
	완전 긍정의 보류 판단	-	-	2	-	-	-	-	-

- (1) a. 이러한 노동, 싸움이 유럽에서는 전혀 불필요하다.  
 b. そんなことをしたら**実現は全く不可能**になる °
- (2) a. 그녀를 붙잡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b.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 (3) c. 그녀 오빠의 형편상 그 돈을 일시에 내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b. 「こう考えればよろしい」という模範解答を示すことは**到底不可能**なのだ °

부정 극성어별로 고찰한다. 예문(1)은 정도의 완전 부정을 나타내는 정도 부사이고, 예문(2)는 완전 부정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부사, 예문(3)은 불가능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부사가 쓰인 문장이다. 한국어의 ‘불가능’ 과 일본어의 ‘不可能’ 에 주목하면 한국어에서는 예문(2)와 (3)에서 ‘불가능’ 과의 호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본어에서는 예문(1)과 (3)에서 ‘不可能’ 와의 호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한국어의 ‘불가능’ 과 일본어의 ‘不可能’ 는 호응하는 부정 극성어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a. いまだ未解決の問題が山積みです °

<sup>4</sup> 표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를 나타낸다.

b. 機器の取り扱いは全く未経験である。

(5) a. 그는 꽃에 대하여 도무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b. いかなる美しさもここでは全く無意味である。

부정 접두사별로 고찰한다. 예문(4)는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未-’가 결합된 어휘가 나타나는 문장이다. 예문(5)는 일본어에서 많이 나타난 ‘無-’가 결합된 어휘가 나타난 문장이다. 여기에서는 부정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가 한 쪽 언어에서만 쓰이는 경우(예문(4))와 양쪽 언어에서 쓰이는 경우(예문(5))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가 있다.

### 3 . 마무리

본 고찰에서는 한일 양언어의 부정 극성어와 부정 접두사의 호응에 대하여 두 측면에서 호응의 양상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 앞으로 이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부정 표현 전반의 연구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구종남(1990) 「부정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28 권 pp.403-423
- 구종남(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회 `국어문학 38 pp.5-27
- 김종숙(2001) 「한일 양언어의 부정접두사 「不-」, 「非-」, 「未-」, 「無-」의 대조 연구」 慶尙大 学校教育大学院 `修士學位論文
- 남기삼,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한국언어학회 `언어학(22) pp.217-244
- 서상규(1984a)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학회 `한글(186) pp.73-114
- 서상규(1984b) 「국어의 부정문의 의미 해석원리」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9 권 pp.41-79
- 시정곤(1997)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조건」 한국언어학회 `언어 22(3) pp.471-497
- 송석중(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학회 `한글(173,174) pp.327-352
- 이은섭,이선웅(2013) 「의미의 대립 관계와 부정극어의 공기 현상에 대해서」 한국어어미학회 `한국어어미학 42 pp.247-267
- 김영희(1998)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글학회 `한글(240,241) pp.263-298
- 加藤泰彦 他(2010) 『否定と言語理論』 開拓社
- 仁田義雄(2012) 『現代日本語文法 3』 くろしお出版